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 동향 분석\*

## International Trends in Reading Research with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 Keyword Network Analysis

이 현 숙 (Hyeonsook Lee)\*\*

구 본 진 (Bonjin Koo)\*\*\*

### 초 록

본 연구는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된 독서 관련 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서 수집한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관련 영어 학술논문 821편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서 관련 연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증하였으며, 점차 공동 연구가 확대되고, 논문 수록 학술지와 연구 참여 국가가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심성 분석 결과, 'public library', 'e-book', 'academic library'는 모든 시점에서 높은 중심성을 유지하며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디지털 독서와 대학도서관 중심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2020년대 들어서는 'COVID-19'와 'school library', 'reading habit' 키워드가 새롭게 부상하였다. 이는 팬데믹 이후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독서 연구의 초점이 디지털 독서 행태 분석에서 독서 습관 형성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한 독서 연구의 필요성,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자 상담 연구 강화, 비독자를 포함한 다양한 독자층에 대한 연구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ternational trends in reading research with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 achieve this, 821 English-language journal articles indexed in the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were analyz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reading research began to increase significantly after 2011 and grew rapidly in the 2020s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Over time, patterns of collaboration expanded, and both publishing journals and contributing countries became more diversified. Centrality analysis identified 'public library', 'e-book', and 'academic library' as core keywords consistently prominent across all periods. The findings also indicate that international research has emphasized digital reading and academic libraries. In the 2020s, the emergence of keywords such as "COVID-19," "school library," and "reading habit" reflects growing interest in the role of school libraries and indicates a shift in reading research from digital reading behavior to reading habit formation in the post-pandemic era.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that integrates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reading research, strengthens readers' advisory research centered on school libraries, and expands the scope of research to encompass diverse readers as well as non-readers.

키워드: 문헌정보학, 독서 연구, 연구 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ading Research, Research Trends, Keyword Network Analysis, Centrality Analysis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 물운대초등학교 사서교사(hslee09217@gmail.com / ISNI 0000 0005 0628 7310)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bjkoo@pusan.ac.kr / ISNI 0000 0005 0269 148X)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5월 22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6월 10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2): 349-374,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2.349>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독서는 인간의 인격 형성과 지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활동으로 오랫동안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문헌정보학, 교육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독서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특히, 문헌정보학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독서 문화를 형성하고 이용자의 독서 활동을 지원해 온 학문 분야로, 국내 독서 및 독서교육 관련 연구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의 생산성이 가장 높아(김판준, 2011) 독서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는 1914년경 도서관 자료를 교육 차원에서 이용한 사례를 통해 그 흐름이 확인되며, 이후 1998년 미국의 「독서진흥법(Reading Excellence Act)」 제정과 영국의 ‘독서의 해(National Year of Reading)’ 선포를 기점으로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다(김판준, 2015). 국내에서도 1990년 후반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독서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며(김중성, 2013), 2000년대에는 독서교육 인프라 조성 and 제도적 기반 마련,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 운동 중심의 연구가, 2010년대에는 이용자 맞춤형 독서 연구 등으로 주제가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김현숙, 강보라, 2020).

최근 들어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확산, 모바일 기기 활용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독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독서 행태를 개인의 해석 중

심의 독서에서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읽기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김중윤, 2025). 이처럼 독서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독서 연구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를 포함하여 독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있으며, 비교적 최근까지도 수행된 것을 볼 수 있다(김중성, 2013; 김판준, 2011; 김현숙, 강보라, 2020; 변희균, 2013; 장령령, 홍현진, 2014). 반면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김판준(2015)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14년까지의 해외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10여 년간의 변화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된 독서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시대별 핵심 키워드와 키워드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독서 연구의 변화 양상과 지적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된 독서 관련 연구의 동향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시대별 핵심 키워드의 출현 양상과 키워드 간 관계를 파악하고, 독서 연구의 동향 및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 문제 1.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생산 및 협력 양상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연구 문제 2.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핵심 주제와 지적 구조는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2. 선행연구

지금까지 독서 연구는 문헌정보학 외에도 국어교육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계량서지적 측면에서 연구 동향을 파악하려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기의 독서 연구 동향 연구는 특정 학술지나 제한된 범위를 대상으로 계량서지적 분석 및 내용 분석을 수행하여 독서 연구의 주제 분포나 연구 대상 및 방법 측면의 경향을 정리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민채, 김영환, 2016; 김종성, 2013; 이순영, 2011). 이후 토픽모델링, 저자/키워드 프로파일링, 단어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 등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전체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독서 연구의 지적 구조, 시기별 연구 주제, 주요 연구 분야 및 향후 연구 주제 등을 보다 거시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승주, 2019; 김관준, 2011; 2015; 김현숙, 강보라, 2020; 변희균, 2013; 장령령, 홍현진, 2014).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헌정보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문 분야별 독서 연구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다. 김관준(2011)은 국내 독서 및 독서교

육 연구의 지적 구조를 분석하여 전체 생산에서는 교육학 비중이 크지만 핵심 저자 측면에서는 문헌정보학 저자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며, 문헌정보학이 독서 연구에서 일정한 주도성을 지닌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변희균(2013)은 문헌정보학, 한국문학, 교육학 분야를 비교하여 학문 분야별 독서 연구의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문헌정보학 분야가 비교적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문헌정보학 분야 내에서 독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김종성(2013)은 내용 분석을 통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독서 연구가 독서치료, 독서 프로그램, 독서 행태 등 특정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김현숙과 강보라(2020)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독서 연구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중심에서 어린이, 청소년 독서 교육 중심으로 핵심 주제가 이동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비교적 최근까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에 한정하여 독서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연구는 김관준(2015)이 대표적이다. 김관준(2015)은 문헌정보학 분야 대표 데이터베이스인 LISTA를 기반으로 1914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0년간의 독서 관련 학술논문 2,115편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독서 및 독서교육 연구의 성장 양상과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분석 시점이 2014년까지로, 최근 10여 년간 급격하게 변화한 디지털 독서 환경이나 이용자 독서 행태의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시기별 논문 수, 공동 연구 양상, 수록 학술지, 저자 소속 국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키워드 동시 출현 빈도와 연결중심성을 통해 핵심 키워드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며, 나아가 매개중심성을 확인하여 연구 주제 간 연결 구조와 변화 과정에서 핵심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키워드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 동향의 시기적 공백을 메우고, 단순 주제 및 범주 분포 중심의 연구 동향 연구에서 나아가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지적 구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재편되어 왔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및 데이터 수집 기준

본 연구는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된 독서 관련 영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독서(reading)는 노명완(1996)과 Ross(1999)의 관점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면서 독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독서'는 범교과적인 성격을 띠며,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활동 등 학교 안팎의 다양한 독서 활동을 포함한다(천경록, 2008). 다만, 학술적 목적을 위한 전자 저널 읽기나 블로그 및 뉴스 기사 읽기는 본 연구의 '독서' 범주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 문헌은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하였고, 영어로 작성된 논문 중 초록이 있는 논문만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2025년 2월 3일, Topic 필드에서 'reading'과 'reader\*'를 각각 검색하여 영어로 작성된 문헌정보학(Information Science & Library Science) 분야 학술논문을 추출하였다. 이때 문헌 유형을 '학술논문(article)'으로 제한하였으며, 학술대회 논문(proceedings paper), 서평(book review), 편집자료(editorial material)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검색 결과, 5,056편의 논문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중복 논문 496편을 제외한 4,560편 가운데 저자 부여 키워드가 있거나, 저자 부여 키워드가 없더라도 초록이 있는 논문 3,756편을 1차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어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독서와 관련이 없는 논문은 제외하고, 888편을 2차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시대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논문 수를 검토한 결과, 1900년부터 1999년까지의 초록이 있는 논문은 총 67편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독서 관련 연구 총 821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독서 관련 연구의 시기별 변화를 10년 단위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분석 시기를 2000년대(2000~2009년), 2010년대(2010~2019년), 2020년대(2020~2024년)로 구분하였으며, 2020년대는 데이터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의 논문을 포함하였다.

#### 3.2 키워드 수집 방법

본 연구의 키워드 분석은 키워드 추출, 키워

드 통제, 키워드 선정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1 단계의 키워드 추출 단계에서는 저자 부여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였고, 해당 키워드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제목과 초록을 검토한 후, 연구 주제, 연구 대상, 독서 매체 및 자료 유형, 연구 기관 및 환경 등을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 4~5개를 직접 부여하였다. 키워드는 연구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방법만을 나타내는 키워드나 연구의 핵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용어는 제외하였다. 다만 연구 방법 자체가 연구의 주요 주제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하였다. 세부적인 키워드 부여 기준은 <표 1>과 같다. Web of Science의 키워드 플러스(Keywords Plus)는 자동 생성 키워드로 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중복을 포함한 총 4,287개의 키워드를 수집하였으며, 논문 1편당 부여된 평균 키워드 수는 5.2개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집 및 부여한 키워드를 통제하였다. 키워드 통제 작업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검토하였으며, 통제 여

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초록을 재검토하여 문맥에 적합한 키워드로 조정하였다.

키워드 통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출된 키워드는 소문자 통일, 복수명사 단수화, 띄어쓰기, 품사형태 변경 등 교정 작업을 실시한다.

둘째, 동일한 의미로 쓰인 유의어는 하나의 대표 단어로 통제한다.

셋째, 다양한 하위 개념이 존재할 경우, 상위 개념에 통제한다.

넷째, 검색어('reading', 'reader')와 국가명, 지명, 인명, 동일 의미의 외국어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3단계의 키워드 선정 단계에서는 분석에 사용할 최종 키워드를 확정하였다. 2단계의 통제 작업 이후 각 시기별로 중복 키워드를 제거한 결과, 2000년대 356개(134편), 2010년대 754개(314편), 2020년대 1,063개(373편)로, 총 2,173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후 전 시기를 통합하여 중복을 제거한 결과, 최종 고유 키워드는 1,749개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자 직접 키워드 부여 기준

구분	키워드 부여 기준	예시	비고
연구 주제	제목 및 초록에 나타난 연구의 핵심 개념 반영	leisure reading, readers' advisory, reading behavior, reading accessibility 등	모든 논문에 적용
연구 대상	연구의 주요 참여자 및 서비스 대상 집단 반영	university stud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children, teenager 등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경우에만 부여
독서 매체 및 자료 유형	독서에 사용된 매체 및 자료 유형 반영	e-book, genre fiction, audiobook, graphic novel, fiction 등	
연구 기관 및 환경	연구가 수행된 주요 기관 및 도서관 유형 반영	public library, academic library, school library, prison library 등	
연구 방법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구 방법 자체가 연구의 주요 주제인 경우 반영	bibliometric analysis, citation analysis, text mining 등	

### 3.3 분석 방법

#### 3.3.1 통계 분석

먼저,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Web of Science에서 수집한 논문의 서지 정보를 엑셀(Excel) 프로그램에 정리한 후, 연도별 논문 수, 공동 연구 양상, 수록 학술지 분포, 저자 소속기관의 국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독서 연구의 생산 추이, 시대별 연구 수행 방식의 변화, 논문이 수록된 주요 학술지의 변화, 연구자 소속기관의 국가별 분포 변화 등 전반적인 연구 특성을 비교하였다.

#### 3.3.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문헌에서 추출한 키워드 간 동시 출현(co-occurrence) 빈도를 기반으로 주요 연구 주제와 지적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이수상, 2012; 정혜영 외, 2015).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출현 빈도와 동시 출현 빈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엑셀(Excel) 프로그램에서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분석한 후, 파이썬(Python)을 활용하여 동일 논문 내에 함께 출현한 키워드 쌍을 추출하고 동시 출현 빈도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핵심 키워드의 영향력과 연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성 분석에는 최근 다수의 동향 분석 연구에서 활용(김현숙, 강보라, 2020; 이성신, 2016; 이세나, 2023) 되고 있는 넷마이너(NetMiner 4.0)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키워드의 중요도와 매개 역할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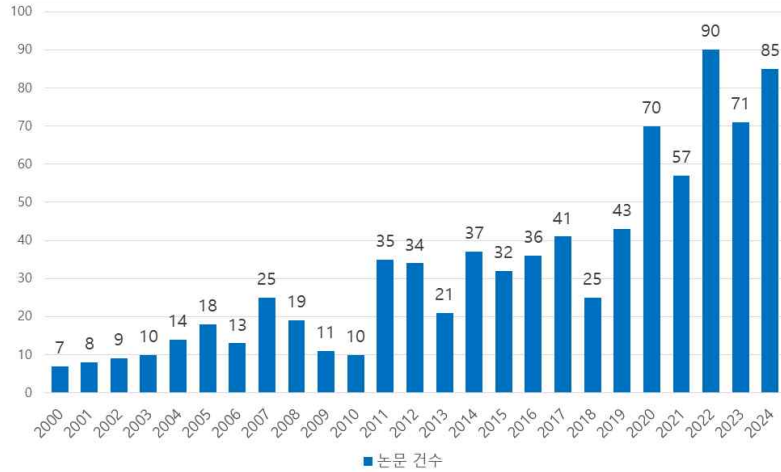
맞추어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일부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연구 목적상 해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연도별 논문 수 및 공동 연구 양상 분석

최종 분석 대상 821편 논문의 연도별 논문 수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발표 논문 수가 평균 10편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34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맞물려 연구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022년에는 90편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최근 독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 연구 양상을 살펴보면(<표 2> 참조), 공동저자 논문은 59.7%로 단독저자 논문(40.3%)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단독 연구 비중이 62.7%로 더 높았으나, 2010년대와 2020년대에는 공동 연구가 각각 63.1%, 64.9%로 증가하며 연구 수행 방식이 개인 중심에서 협력 중심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Larivière et al. (2015)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단독저자 논문이 1900년에 자연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 전체 논문의



〈그림 1〉 연도별 논문 수 추이

〈표 2〉 시대별 단독 및 공동저자 논문 수 변화

구분	2000년대(2000~2009년)		2010년대(2010~2019년)		2020년대(2020~2024년)		합계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단독저자 논문	84	62.7	116	36.9	131	35.1	331	40.3
공동저자 논문	50	37.3	198	63.1	242	64.9	490	59.7
합계	134	100.0	314	100.0	373	100.0	821	100.0

87%, 사회과학·인문학 분야에서 97%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각각 7%와 38%로 감소하였다. 이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점차 개인 중심에서 공동 연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독서 관련 연구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동 연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2 수록 학술지 분포 및 저자 소속 국가 분석

시대별 학술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000년대에는 『The Electronic Library』에 가장 많은 논문(16편, 11.9%)이 실렸고, 『Library Quarterly』(15편, 11.2%),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14편, 10.4%), 『Library Trends』(12편, 9.0%)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학술지가 전체 논문의 75.3%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의 핵심 학술지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대에도 『The Electronic Library』가 8.3%(26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였다. 다만 상위 10개 학술지의 비중은 2000년대(75.3%) 대비 59.6%로 감소하여 수록되는 학술지가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 변화로는 2000년대에 두 번째로 많은 논문을 수록하였던 『Library Quarterly』가 순위권에서 제외된 반면, 호주에서 발행되는 『Journal of the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18편)이 새롭게

〈표 3〉 논문 수록 상위 10개 학술지

순위 <sup>1)</sup>	2000년대(2000~2009년)			2010년대(2010~2019년)			2020년대(2020~2024년)		
	학술지명	논문 수 (편)	전체 논문 대비 비율 (%)	학술지명	논문 수 (편)	전체 논문 대비 비율 (%)	학술지명	논문 수 (편)	전체 논문 대비 비율 (%)
1	The Electronic Library	16	11.9	The Electronic Library	26	8.3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2	8.6
2	Library Quarterly	15	11.2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24	7.6	Journal of Documentation	25	6.7
3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14	10.4	Library Trends	21	6.7	Publishing Research Quarterly	16	4.3
4	Library Trends	12	9.0	Information Research: 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19	6.1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4	3.8
5	Libri: International Journal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tudies	9	6.7	Libri: International Journal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tudies	19	6.1	Library Quarterly	14	3.8
6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7	5.2	Journal of the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18	5.7	Library Management	12	3.2
7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6	4.5	Journal of Documentation	17	5.4	Information Research: 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11	2.9
8	Libraries & the Cultural Record	5	3.7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	5.4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1	2.9
9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5	3.7	Library Hi Tech	16	5.1	Library & Information History	11	2.9
10	Journal of Documentation	4	3.0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0	3.2	Public Library Quarterly	11	2.9
11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	3.0						
12	Program-electronic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s	4	3.0						
	계	101	75.3	계	187	59.6	계	157	42

1)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값을 보인 경우에도 공동 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편의상 연속된 순위를 제시하였다.

계 순위권에 진입하였다.

2020년에는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가 32편(8.6%)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수록하였으며, 상위 10개 학술지의 비중은 42%까지 감소하여 연구가 다양한 학술지로 확산되는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0년대에 『Publishing Research Quarterly』가 처음 순위권에 진입한 반면,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The Electronic Library』는 2020년대에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편, 독서 관련 연구 821편의 저자 수는 총 1,729명이었으며, 논문 1편당 저자 수는 평균 2.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속기관 정보를 통해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저자는 1,676명이었다. 복수 기관에 소속된 저자의 경우, 소속기관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면 가장 먼저 기재된 기관을 대표 소속기관으로 간주하여 국가를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기관 국가를 분류한 결과, 시대별 상위 10개 국가는

〈표 4〉와 같다.

2000년대에는 미국(75명)과 영국(51명), 캐나다(23명) 등 전통적으로 문헌정보학 연구가 활발한 영어권 국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세 국가의 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79.7%에 달해, 이 시기 독서 관련 연구에서 영어권 국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010년대에는 미국의 저자 수가 178명으로 급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만과 중국의 저자 수 또한 각각 58명, 5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들도 독서 관련 연구를 국제 학술지에 적극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2000년대에 저자 수가 단 3명에 불과했던 호주는 2010년대에는 44명으로 증가하여 5위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2020년대에도 가장 많은 저자 수(188명)를 보이며 독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은 2010년대에 비해 저

〈표 4〉 저자 소속기관의 상위 10개 국가

순위	2000년대(2000~2009년)		2010년대(2010~2019년)		2020년대(2020~2024년)	
	국가명	저자 수(명)	국가명	저자 수(명)	국가명	저자 수(명)
1	United States of America	75	United States of America	178	United States of America	188
2	United Kingdom	51	Taiwan	58	China	118
3	Canada	23	China	52	Australia	42
4	Taiwan	8	United Kingdom	47	Brazil	42
5	New Zealand	5	Australia	44	United Kingdom	39
6	Australia	3	Canada	40	Taiwan	33
7	Brazil	3	Japan	19	Pakistan	23
8	China	3	Malaysia	19	Canada	22
9	India	3	Spain	18	Sweden	22
10	Malaysia	3	Finland	17	India	21



〈표 5〉 시대별 출현 빈도 상위 15개 키워드

순위	2000년대(2000~2009년)		2010년대(2010~2019년)		2020년대(2020~2024년)	
	키워드	출현 빈도(회)	키워드	출현 빈도(회)	키워드	출현 빈도(회)
1	public library	31	e-book	55	public library	51
2	e-book	18	public library	46	academic library	32
3	academic library	13	academic library	40	e-book	30
4	leisure reading	13	university student	29	digital reading	28
5	digital library	11	digital reading	20	reading habit	25
6	reading behavior	8	reading behavior	20	school library	25
7	persons with disabilities	7	readers' advisory	16	COVID-19	21
8	readers' advisory	6	collection development	15	university student	20
9	teenager	6	leisure reading	15	leisure reading	17
10	user studies	6	e-reader	14	collection development	15
11	book borrowing	5	reading habit	14	readers' advisory	15
12	LGBTQ+	5	user studies	14	reading behavior	14
13	library history	5	persons with disabilities	13	library service	13
14	reading community	5	school library	13	persons with disabilities	13
15	reading habit	5	reading format preference	12	reading culture	13
16	reading practice	5			reading promotion	13
17	youth	5			school librarian	13

문적 관심이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자책 이용 환경이 확산되면서 'digital reading'과 'e-reader' 역시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이는 독서 매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반 읽기 방식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public library'와 'academic library'는 2000년대에 이어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school library'가 처음으로 순위권에 등장하여 학교도서관 기반의 독서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university student'가 새롭게 상위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김성엽

(2022)의 국내 디지털 읽기 연구 동향 분석 연구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인 대학생 집단에 대한 읽기 능력과 읽기 양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readers' advisory'가 2000년대에 이어 2010년대에도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기록하였다. 반면, 2000년대 상위권에 위치하였던 'digital library'는 2010년대에는 순위권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해당 개념이 'e-book'과 'digital reading'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 세분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0년대에는 ‘public library’와 ‘academic library’가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는데, 공공 및 대학도서관이 전 시기에 걸쳐 독서 관련 연구를 주도하는 주요 기관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e-book’과 ‘digital reading’ 역시 이전 시기에 이어 여전히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어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환경 속에서 디지털 독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school library’와 ‘school librarian’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여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 연구도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readers’ advisory는 2020년대에도 꾸준히 출현하며 전 시기에 걸쳐 높은 빈도를 유지하였다. 반면, ‘university student’와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특정 독자 집단에 대한 키워드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 4.4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구성 및 특성

독서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키워드의 전반적인 분포와 연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대별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각 시대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6〉 참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드 수와 엣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에는 356개의 노드와 1,002개의 엣지, 2010년대에는 754개의 노드와 2,646개의 엣지, 그리고 2020년대는

분석 기간이 5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062개의 노드와 4,377개의 엣지로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독서 관련 연구에서 사용되는 키워드 수가 증가하고, 연구 주제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밀도는 2000년대 0.016에서 2010년대 0.009, 2020년대 0.008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키워드 수가 증가한 반면, 키워드 간 연결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평균 차수는 2000년대 5.6개, 2010년대 7개, 2020년대 8.2개로 꾸준히 증가하여, 키워드 하나당 연결된 키워드 수는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컴포넌트 수는 2000년대와 2010년대는 각각 11개였으나, 2020년대에는 18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키워드가 다양화·세분화되면서 중심 키워드와 연결되지 않은 소규모 주제 집단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5 핵심 키워드 네트워크 구성 및 중심성 분석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는 구조가 복잡해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핵심적인 연구 맥락을 중심으로 구조를 단순화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였다(이정락 외, 2022). 먼저 출

〈표 6〉 시대별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시기	노드 수	총 엣지 수	밀도	평균 차수	직경	컴포넌트 수
2000년대(2000~2009년)	356	1,002	0.016	5.629	7	11
2010년대(2010~2019년)	754	2,646	0.009	7.019	7	11
2020년대(2020~2024년)	1,062	4,377	0.008	8.243	7	18

〈표 7〉 시대별 핵심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시기	노드 수	총 엣지 수	밀도	평균 차수	직경	컴포넌트 수
2000년대(2000~2009년)	29	31	0.076	2.138	5	5
2010년대(2010~2019년)	72	119	0.047	3.306	7	5
2020년대(2020~2024년)	92	170	0.041	3.696	6	5

현 빈도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키워드(3회 이상 출현)를 추출하고, 동시 출현 빈도가 2회 이상인 연결 관계를 추출하여 시대별 핵심 키워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핵심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은 〈표 7〉과 같다.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네트워크 밀도는 시대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평균 차수는 시대별로 증가하여 핵심 키워드 간에는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컴포넌

트 수는 모든 시기에서 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4.5.1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

연결중심성은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직접 연결된 정도를 나타내며, 연결 수가 많을수록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수상, 2012).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간 연결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석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출현 빈도가 3회 이상이면서 동시 출현 빈도가 2회 이상인 키워드를 대상으로 연결중심성을 분석하였다(〈표 8〉 참조).

〈표 8〉 시대별 연결중심성 상위 10개 키워드(출현≥3회, 동시 출현≥2회)

순위	2000년대(2000~2009년)		2010년대(2010~2019년)		2020년대(2020~2024년)	
	키워드	연결중심성 값	키워드	연결중심성 값	키워드	연결중심성 값
1	public library	0.357143	public library	0.309859	e-book	0.208791
2	e-book	0.214286	e-book	0.295775	public library	0.208791
3	leisure reading	0.142857	academic library	0.239437	COVID-19	0.186813
4	academic library	0.107143	university student	0.183099	academic library	0.175824
5	electronic publishing	0.107143	reading behavior	0.140845	digital reading	0.175824
6	internet	0.107143	digital reading	0.112676	reading habit	0.142857
7	LGBTQ+	0.107143	reading format preference	0.084507	school library	0.142857
8	user studies	0.107143	collection development	0.070423	school librarian	0.10989
9	book borrowing	0.071429	e-reader	0.070423	leisure reading	0.098901
10	collection development	0.071429	persons with disabilities	0.070423	reading promotion	0.087912
11	LGBTQ+ literature	0.071429	readers' advisory	0.070423	university student	0.087912
12	library service	0.071429	reading habit	0.070423		
13	reading practice	0.071429	user studies	0.070423		
14	teenager	0.071429				

1) 2000년대 논문의 연결중심성 분석

2000년대에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public library'는 연결중심성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나, 당시 독서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음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김판준(2015)이 1998~2003년 시기에 공공도서관이 독서 및 독서교육의 주요 주제로 부상하였다고 분석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시각화된 네트워크에서 'public library'는 'book borrowing', 'leisure reading'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 대출을 기반으로 한 독서 활동과 여가 독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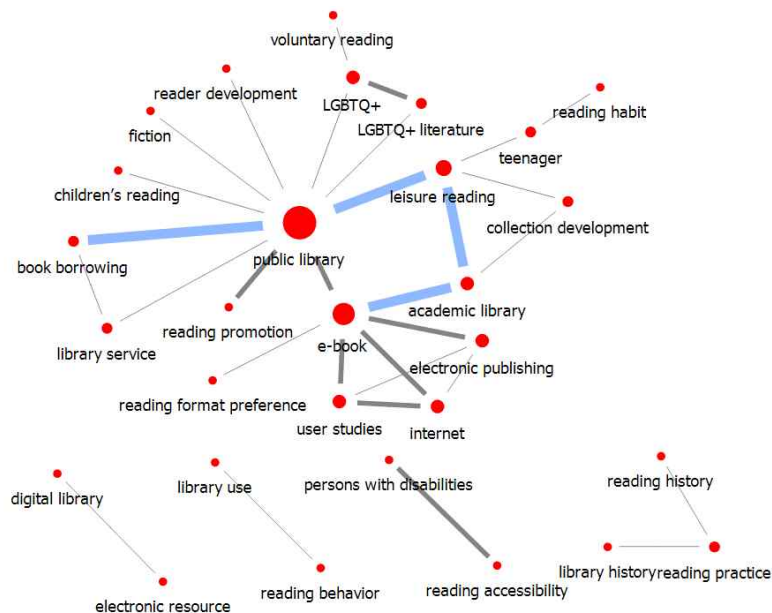
연결중심성 값이 두 번째로 높은 'e-book'은 'academic library'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전자책 관련

연구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연결중심성이 세 번째로 높은 'leisure reading'은 'public library'와 'academic library'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여가 독서가 공공 및 대학도서관의 공통 관심 주제로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digital library', 'reading behavi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은 주요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못하고 고립된 노드로 나타났다. 2000년대 키워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을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노드의 크기는 연결중심성 값을, 엣지의 굵기는 두 키워드의 동시 출현 빈도를 의미한다.

2) 2010년대 논문의 연결중심성 분석

2010년대 연결중심성은 'public library', 'e-book', 'academic library'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그림 3> 2000년대 연결중심성 시각화(출현≥3회, 동시 출현≥2회)



## 3) 2020년대 논문의 연결중심성 분석

2020년대에는 'e-book'과 'public library'가 연결중심성 값이 0.21로 공동 1위를 기록하였고, 'COVID-19'가 3위를 차지하였다. 이 세 키워드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공공도서관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이 전자책이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10년대에 대학도서관 환경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전자책 연구가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대에는 공공도서관과 일반 이용자로 연구 대상과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e-book'은 'digital reading', 'audiobook', 'print book', 'reading format preference', 'reading behavior' 등과 연결되며, 팬데믹 상황에서의 독서 행태 변화와 인쇄책과 전자책 간의 매체 선호, 오디오북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독서 형태에 관한 논의가 2020년대에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public library'는 'COVID-19', 'e-book', 'library closure', 'children's service', 'reading culture', 'library service', 'readers' advisory' 등과 연결되어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도서관이 휴관한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이용자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노력들이 연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1). 또한, 'public library'는 'immigrant reader', 'persons with disabilities', 'social inclusion' 등과 연결되며,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digital reading'(공동 4위), 'reading habit'(공동 6위), 'university student'(공동 10위)

세 키워드는 굵은 선으로 연결되어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특히 2010년대에 연결중심성이 높았던 'reading behavior'가 순위권에서 제외되고, 'reading habit'이 급부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대에는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의 이용 방식, 모바일 독서, 전자책 이용 등 디지털 환경에서 변화하는 독서 행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2020년대에는 디지털 환경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독서습관, 여가독서, 독서문화,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 활동 등 독서습관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연구 관심이 독서 행태 분석에서 독서습관과 독서문화 조성으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school library'와 'school librarian'은 2020년대에 처음으로 연결중심성 순위권에 진입하였다. 특히 'school library'는 'COVID-19', 'library closure', 'library access', 'leisure reading', 'children's service', 'well-being' 등과 연결되어 나타났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학교도서관 자료 접근성 변화, 독서교육 및 리터러시 지원, 학생의 웰빙 증진, 포용적 서비스 제공 등 학교도서관의 역할 확대가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키워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을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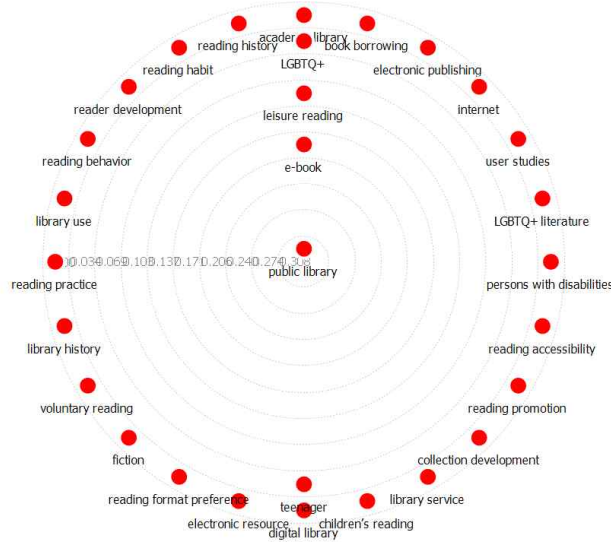
## 4.5.2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

매개중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최단 경로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이수상, 2012). 매개중심성



〈표 9〉 시대별 매개중심성 상위 10개 키워드(출현≥3회, 동시 출현≥2회)

순위	2000년대(2000~2009년)		2010년대(2010~2019년)		2020년대(2020~2024년)	
	키워드	매개중심성 값	키워드	매개중심성 값	키워드	매개중심성 값
1	public library	0.342593	public library	0.382625	public library	0.225556
2	e-book	0.179894	e-book	0.21846	e-book	0.189938
3	leisure reading	0.12963	academic library	0.191804	COVID-19	0.145095
4	LGBTQ+	0.047619	reading behavior	0.119615	school library	0.121298
5	teenager	0.047619	fiction reader	0.09497	academic library	0.116951
6	academic library	0.033069	university student	0.094556	reading habit	0.10894
7	reading practice	0.002646	collection development	0.061936	digital reading	0.104245
8			persons with disabilities	0.061697	leisure reading	0.07373
9			readers' advisory	0.053614	reading promotion	0.072323
10			fiction search	0.049497	school librarian	0.058817
11			user studies	0.049497		



〈그림 6〉 2000년대 매개중심성 시각화(출현≥3회, 동시 출현≥2회)

지만, 매개중심성은 'public library'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public library'가 보다 다양한 키워드 간의 연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00년대 매개중심성이 상

대적으로 낮았던 'academic library'는 2010년대에는 3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academic library'가 2000년대에 전자책이나 장서개발, 여가독서 관련 키워드 등 제한된 주제와 주로 연결되어 있었





다가 점차 다양한 학술지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연구 수행 국가 역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 중국, 브라질, 대만, 파키스탄 등 다양한 지역과 문화권으로 확장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시대별 주요 주제와 지적 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독서가 독서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초기에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책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20년대는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환경 속에서 공공도서관과 일반 이용자로 연구 대상이 확장되어 독서 행태의 변화와 독서 매체의 선호 등을 논의하는 주제로 다변화되었다. 김관준(2015)은 해외 독서 연구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의 등장에 따라 전자책 등 새로운 유형의 자료에 관한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e-book', 'digital reading', 'e-reader', 'audiobook'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경향이 2015년 이후에도 지속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김현숙과 강보라(2020)의 국내 연구에서 '전자책' 관련 키워드가 순위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해외 연구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디지털 독서에 대한 관심을 국내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연구 주제에 반영해 온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독서 연구에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키워드는 세 시기 모두 출현 빈도와 중심성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독서 연구의 주요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김관준

(2015)은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 중심의 연구가 확대되었다고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2010년대와 202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현숙과 강보라(2020)의 연구에서도 '공공도서관' 중심의 연구 경향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지만, 해외에서는 공공도서관과 함께 대학도서관이 높은 연구 비중을 차지한 반면, 국내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20년대에는 'COVID-19'와 'school library', 'reading habit' 키워드가 새롭게 부상하였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독서 연구의 초점이 디지털 독서 행태 분석에서 독서 습관 형성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독자 지원 서비스의 접근 방식에서 독자 상담과 독서 치료의 연구 경향 차이가 나타났다. 독자 상담(Readers' Advisory) 관련 연구는 전 시기에 걸쳐 높은 출현 빈도를 유지하며 해외 독서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독서치료가 오랫동안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온 것(김현숙, 강보라, 2020)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bibliotherapy'가 출현 빈도와 중심성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미국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는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보다 독자 상담 서비스가 참고 서비스의 중심 영역으로 발전해 왔다고 분석한 이재환(200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넷째, 다양한 이용자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중심성 상위권은 아니지만 성소수자나 이민자, 노인 등 다양한 소외 계층 키워드가 출

현하였다. 특히 장애인 관련 키워드는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등장하며 독서 접근성과 포용적 서비스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학생 중심의 연구에서 도서관 이용자, 어린이, 청소년, 전자책 독자 등으로 연구 대상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고 분석한 김판준(2015)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성소수자, 이민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 관련 키워드가 나타나 독서 연구의 대상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독서 연구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독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도 디지털 독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듯이 향후 독서 연구는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독서의 개념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은 독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의 독서는 고정된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이었으나, 최근에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요약하며 토론하는 등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로 변화하고 있다(김중윤,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2020년대에 인공지능 관련 키워드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생성형 AI의 확산이 최근에 급속도로 이루어진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인공지능이 독자와 자료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독서 개념의 재정립,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자 상담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으로, 이 시기의 독서 경험은 평생 독서습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해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 비해 학교도서관의 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주제인 독자 상담(Readers' Advisory) 서비스를 학교도서관 현장에 도입하는 연구나 개인별 맞춤 독자 상담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독자층과 비독자를 포괄하는 독자 중심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독자층을 다룬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었으나, 중심성 상위권에는 여전히 대학생이나 장애인 등 특정 집단 관련 키워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성소수자 관련 키워드는 2000년대 이후 출현 빈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국의 성인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22)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지 않는 비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향후 독서 연구에서는 독자의 다양한 연령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와 함께, 비독자의 독서 인식, 독서 회피 요인, 독서 참여 가능성 등을 다루는 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김판준(2015)의 연구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해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 동향을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시대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독서 연구

의 주제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와 매개 키워드의 구조적 특성을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독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김관준(2015)은 LISTA를, 본 연구는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시기와 수록 학술지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결과 비교 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Scopus, LISTA 등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연구나 이후 발표된 최신 연구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해외 전체 독서 연구의 동향을 완전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키워드 부여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키워드 중심의 분석이라는 특성상 개별 연구의 맥락과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이나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병행하여 개별 연구의 맥락과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민채, 김영환 (2016). 국내 독서교육 관련연구 동향에 대한 교육공학적 분석: 2011~2015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41, 9-47. <https://doi.org/10.17095/JRR.2016.41.1>
- 김성엽 (2022). 디지털/온라인 읽기의 개념과 국내 연구 동향: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연구물을 바탕으로. *독서연구*, 65, 81-109. <https://doi.org/10.17095/JRR.2022.65.3>
- 김승주 (2019). 토픽모델링과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독서 연구의 동향과 전망: 최근 10년 간 국어교육학 관련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70, 169-204. <https://doi.org/10.26589/jockle..70.201906.169>
- 김종성 (2013).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99-124. <https://doi.org/10.16981/kliss.44.3.201309.99>
- 김종윤 (2025).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 개념 변화와 독서교육의 방향. *독서연구*, 75, 95-133. <https://doi.org/10.17095/JRR.2025.75.3>
- 김관준 (2011). 저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내 독서 연구 영역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21-44.
- 김관준 (2015). 국외 독서 및 독서교육 연구동향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3), 69-97. <https://doi.org/10.3743/KOSIM.2015.32.3.069>
- 김현숙, 강보라 (2020).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독서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 59-81. <https://doi.org/10.16981/kliss.51.4.202012.59>
- 노명완 (1996). 讀書概念의 現代的 照明. 독서연구, 1, 55-88.
- 변희균 (2013). 키워드 프로파일링을 통한 분야별 국내독서 연구방향 분석. 한국독서교육학회지, 1(1), 51-66.
- 이성신 (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서관마케팅 연구 경향 분석: 우리나라와 국외연구의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383-402. <https://doi.org/10.4275/KSLIS.2016.50.3.383>
- 이세나 (2023). 독서 능력과 읽기 능력의 연구 동향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3), 223-248. <https://doi.org/10.16981/kliss.54.3.202309.223>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순영 (2011). 읽기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국내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0, 311-340.
- 이정락, 정재훈, 유호웅, 이윤경, 김지인 (2022). 빅데이터와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제환 (2009). 한국 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5-29. <https://doi.org/10.16981/kliss.40.4.200912.5>
- 장령령, 홍현진 (2014). 학술지 중요도와 키워드 순서를 고려한 단어동시출현 분석을 이용한 독서분야의 지적구조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295-31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4.25.1.295>
- 정혜영, 정혜영, 손유진 (20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사 연구동향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4(2), 283-308.
- 천경록 (2008). 읽기의 의미와 읽기 과정 모형에 대한 고찰. 청람어문교육, 38, 239-271. <https://doi.org/10.26589/jockle..38.200812.239>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1). 2021 State of America's Libraries Special Report: COVID-19.
- Bae, Jangseong, Lee, Changki, Lim, Soojong, & Kim, Hyunki (2020). Korean Semantic Role Labeling with BERT.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47(11), 1021-1026. <https://doi.org/10.5626/JOK.2020.47.11.1021>
- Larivière, V., Gingras, Y., Sugimoto, C. R., & Tsou, A. (2015). Team size matters: collaboration and scientific impact since 1900.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6(7), 1323-1332. <https://doi.org/10.1002/asi.23266>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22). Arts Participation Patterns in 2022.
- Ross, C. S. (1999). Finding without seeking: the information encounter in the context of reading for pleasure.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5(6), 783-799. [https://doi.org/10.1016/S0306-4573\(99\)00026-6](https://doi.org/10.1016/S0306-4573(99)00026-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eon, Hoi-Kyun (2013). A study on the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trends in Korea using keyword profiling. *Journal of the Reading Education Society*, 1(1), 51-66.
- Cheon, Gyeong-Rok (2008). Revisiting the meaning and process models of reading.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38, 239-271.  
<https://doi.org/10.26589/jockle..38.200812.239>
- Jung, Hye-Young, Jung, Hye Young, & Shon, yoojin (2015). Trends relating to early childhood teacher research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4(2), 283-308.
- Kim, Hyunsook & Kang, Bora (2020). A study on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trends in Korea's LIS fiel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59-81.  
<https://doi.org/10.16981/kliss.51.4.202012.59>
- Kim, Jong Sung (2013). Trends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99-124.  
<https://doi.org/10.16981/kliss.44.3.201309.99>
- Kim, Jong Yun (2025). Redefining the concept of reading and rethinking reading educatio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Reading Research*, 75, 95-133.  
<https://doi.org/10.17095/JRR.2025.75.3>
- Kim, Min-Chae & Kim, YoungHwan (2016). Research trends analysis of Korean reading education focused on educational technology between 2011 and 2015. *Journal of Reading Research*, 41, 9-47. <https://doi.org/10.17095/JRR.2016.41.1>
- Kim, Pan Jun (2011). Domain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in Korea using author profilin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21-44.
- Kim, Pan Jun (2015).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ading and reading instruction in overseas: focused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69-97. <https://doi.org/10.3743/KOSIM.2015.32.3.069>
- Kim, SeongYeup (2022). Define and review digital/online reading research in Korea: focusing on the studies between 2000 to 2022. *Journal of Reading Research*, 65, 81-109.  
<https://doi.org/10.17095/JRR.2022.65.3>
- Kim, Seung Ju (2019). Trends and prospects of reading research using topic modeling and time series analysis: focused on journal articl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recent

- 10 years.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70, 169-204.  
<https://doi.org/10.26589/jockle..70.201906.169>
- Lee, Jae Whoan (2009). Readers' advisory and bibliotherapy in Korean library commun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5-29.  
<https://doi.org/10.16981/kliss.40.4.200912.5>
- Lee, Jeong Rag, Jung, Jae-hoon, Yoo, Ho-woong, Lee, Yun-Kyoung, & Kim, Jiin (2022). *Big Data and Text Network Analysis*.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Press.
- Lee, Sena (2023). Comparativ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reading ability-related fiel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3), 223-248.  
<https://doi.org/10.16981/kliss.54.3.202309.223>
- Lee, Seongsin (2016). A study on the library marketing research trends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383-402.  
<https://doi.org/10.4275/KSLIS.2016.50.3.383>
- Lee, Soon Young (2011). Recent trends in reading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analyzing journal articles from 2005 to 2010.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10, 311-340.
- Lee, Soosang (2012). *Network Analysis Methods*. Seoul: Nonhyung.
- Noh, MyeongWan (1996). Contemporary re-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reading.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 55-88.
- Zhang, Lingling & Hong, Hyun jin (2014).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reading studies with co-word analysis based on the importance of journals and sequence of keyword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295-31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4.25.1.295>